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戊申字竝用 한글 금속활자 고증

A Study of Movable Hangeul Metal Types in Combination with the Musin-ja Type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이 재 정 (Lee, Jae-Jeo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무신자병용 |
| 2. 戊申字, 壬辰字, 丁酉字 諺解本과 | 한글 금속활자 |
| 한글 금속활자 | 4. 맺음말 |
| | <참고문헌> |

<초 록>

조선은 국가의 주도 하에 수 십 차례에 걸쳐 활자를 제작하였다. 한문을 공식적인 표기 수단으로 사용했으므로, 이들 활자는 대부분 한자 활자이지만,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편찬한 언해본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한글 활자도 일부 제작하였다.

종래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로 인쇄한 언해본에 사용된 한글 활자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었으므로, 그 판본을 바탕으로 막연히 목활자로 생각해왔다.

본고에서는 무신자와 임진자, 정유자로 인쇄한 언해본들의 인쇄 상태, 글자 형태 등을 자세히 고찰하여, 무신자로 찍은 초기 언해본에서 금속활자인 무신자와 함께 한글 활자 역시 금속활자가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1668년 주조된 무신자는 영조 때까지 많은 책을 인쇄하는데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나무로 보주한 활자가 많아졌는데, 한글 활자 역시 나무로 보주한 활자가 많아졌음을 인본을 통해 밝혔다.

임진자와 정유자로 찍은 언해본의 한글 활자는 목활자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무신자 인쇄본에서부터 사용하던 금속활자도 목활자와 함께 사용하였다. 이는 인본들의 인쇄 상태와 한 면에 똑같은 글자가 등장하는 사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 가운데는 무신자에서 임진자, 정유자로 언해본을 인쇄할 때 사용한 한글 금속활자들이 남아 있다. 여기에 사용한 활자들을 통틀어서 ‘무신자병용 한글 금속활자’로 칭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활자들과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의 인본에 사용된 특징적인 글자들을 비교하여, 실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들이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 인쇄본을 찍을 때 사용한 활자임을 밝혔다.

要語: 국립중앙박물관, 한글금속활자, 무신자병용 한글활자

*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관(jjlee63@museum.go.kr)

접수일: 2009년 12월 6일 최조심사일: 2009년 12월 7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15일

<ABSTRACT>

The Joseon produced dozens of different editions of movable types under the projects led by government. Most of the movable types featured Chinese characters which were the dynasty's official writing system. However, some types featured Hangeul, the Korean alphabet, used for publishing "Korean" books to edify the masses. Without any record on the materials for making the movable Hangeul types used with the Musin-ja, Imjin-ja and Jeongyu-ja types, scholars assumed that they were wooden movable types on the basis of the books printed with them.

In this study I carried out a close examin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printing and the shape of the types used for the books printed with the Musin-ja, Imjin-ja and Jeongyu-ja types and concluded that the Hangeul types used in the early Hangeul books printed with the Musin-ja type were also movable metal types. The Musin-ja types were cast in 1669 and henceforth used to print a large quantity of books right up until the reign of King Yeongjo(r. 1724-1776). The intensive use of these types over such an extended period of time led to the additional casting of types-wooden movable types this time-to supplement the original edition. The books also show that the Hangeul types, too, came to be supplemented by an increasing number of wooden types.

The Hangeul types used for Korean translations of the Chinese texts printed by the Imjin-ja and Jeongyu-ja types were largely wooden movable types. A closer examin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printing in the books clearly reveals that a set of newly carved wooden Hangeul types were used along with the old metal types that had previously been used for the books printed with the Musin-ja type.

Among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collection of Hangeul movable metal types are the Hangeul types used for the books printed with the Musin-ja, Imjin-ja and Jeongyu-ja types. In this study these types are termed as *Musinja Byeongyong Hangeul Geumsokhwalja*(Movable Metal Types of the Korean Alphabet Combined with the Musin-ja Type). This study, by comparing the remaining types with some of the characteristic types used for the books printed with the Musin-ja, Imjin-ja and Jeongyu-ja types, concludes that the types collect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re the ones actually used for printing those books.

Key words: National Museum of Korea, Movable Hangeul Metal Types,
Movable Hangeul Metal Types in Combination with the Musin-ja Type

1. 머리말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에서 필요한 책을 인쇄할 때 사용한 금속활자와 목활자가 다량 소장되어 있다.¹⁾ 이 가운데는 한글 활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한글 금속활자가 750여점 소장되어 있다.

필자는 앞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활자와 관련된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활자 전반에 대한 고증을 하였다. 그 결과 종래 단순히 諺文字 大字, 小字로만 구분되었던 한글 금속활자는 戊申字並用 한글 활자가 주를 이루며, 목활자는 크게 세 종류 즉 무신자병용 한글 금속활자와 함께 쓴 한글 목활자, 둘째는 後期校書館印書體字 並用 한글 활자, 셋째는 五倫行實字임을 밝혔다.²⁾

이후 2006년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에서 한글 금속활자 750여점에 대한 면밀한 고증을 거치고, 과학적 조사 작업을 진행하여 한글 금속활자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됨을 밝혔다. 이는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모양, 글자체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활자에 대한 성분분석의 결과도 소장 활자가 두 종류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0여 점 가량이 乙亥字 並用 한글 금속활자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활자들은 戊申字에서 壬辰字, 丁酉字에 이르기까지 甲寅字系列의 금속활자로 이해본을 찍을 때 사용한 활자들로 파악되었다.³⁾

본고에서는 무신자에서 임진자, 정유자에 이르는 금속활자 이해본에 쓰인 한글 활자를 인본을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무신자병용 한글 금속활자를 보다 면밀히 고증하고자 한다.

1)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자에 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제29집(2004. 12), 311-343.

2)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활자 연구,” 『서지학연구』 제31집(2005. 9), 89-120.

3)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 『한글 금속활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6); 이재정·유혜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금속활자의 고증 및 성분분석,” 『서지학연구』 제37집(2007. 9), 123-164.

2. 戊申字, 壬辰字, 丁酉字 諺解本과 한글 금속활자

조선은 국가의 주도 하에 수 십 차례에 걸쳐 활자를 제작하였다. 한문을 공식적인 표기 수단으로 사용했으므로, 이들 활자는 대부분 한자 활자이지만,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편찬한 언해본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한글 활자도 일부 제작하였다.⁴⁾

그런데 이들 활자의 제작 시기와 재질 등에 대한 기록은 그다지 상세하지 않다. 한자 활자에 대해서는 중요한 활자의 경우 제작 시기와 재질 등이 기록에 남아 있지만, 보조적으로 사용되었던 한글 활자에 대해서는 제작 연대나 제작 방식, 재질 등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이는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와 함께 쓴 한글 활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신자는 1668년(현종 9)에 만들어져 현종~영조 시기 많은 책을 인쇄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활자의 주조와 관련하여 『顯宗改修實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당초에 교서관의鑄字가 임진년 난리에 산실된 뒤 다시 주조하지 못해 木活字로만 책을 인쇄하여 글자 모양이 정미롭지 못했었다. 이때에 이르러 전 호조판서 金佐明이 비로소 銅鐵로 글자를 주조하고서 차자를 올려 공장이들의 糧料와 役價를 호조와 병조로 하여금 달수를 정하여 지급하게 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때부터 公私의 서적이 비로소 정미롭게 되었다.⁵⁾

이 활자에 대해서는 실록에 다시 “수어청이 구리[銅]로 大字 6만 6천 1백여 자, 小字 4만 6천 6백여 자를 주조하였다고 입계하여, 校局에 이송하였다. 전 수어사 金佐明 때에 주조한 글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⁶⁾

1668년에 김좌명이 만든 활자의 명칭이나 활자 모양 등에 대해서는 실록에 기록이 없고, 다만 만든 활자의 수자와 재질이 구리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1668년 경부터 1680년(숙종 6)까지 약 11년 동안의 활자 인본들을 조사

4) 조선시대 국가에서 만든 활자에 대해서는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2) 참조.

5) 『顯宗改修實錄』 9년 8월 5일 辛未.

6) 『顯宗改修實錄』 13년 10월 4일 乙巳.

한 결과 모두 갑인자체 주자인본임이 밝혀졌다. 또 이 속에는 『潛谷遺稿』, 『潛谷先生年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김좌명의 아버지인 金堉의 문집과 연보이다. 따라서 이 책들을 인쇄한 활자가 바로 김좌명이 만든 활자임을 알 수 있으며, 무신년에 만들었으므로 이 활자를 통상 무신자라고 명명한다.⁷⁾

이 활자들은 앞의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수어청에서 교관 즉 교서관으로 옮겨졌으므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책을 인쇄하는 데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무신자는 숙종, 영조 때까지 100여 년 간 많은 책을 인쇄하는 데 사용되었다.⁸⁾ 따라서 후기의 인본들은 초기의 것과 달리 글자체가 고르지 않고 활자가 이지러지거나 가늘어진 것도 있고 補鑄가 많이 이루어졌다.⁹⁾

이에 출판에 관심이 많았던 정조는 세손 시절 영조에게 청하여, 세종 때 만든 갑인자로 찍은 책인 『萬病回春』과 『心經』의 글자본을 바탕으로 15만자를 주조하게 하였다. 또 즉위 후에 전 평양감사 徐命膺에게 명하여 다시 갑인자를 자본으로 15만자를 더 주조하게 하였다. 이를 각각 만든 해의 간지를 따서 임진자, 정유자라고 한다.¹⁰⁾ 이 활자들의 재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구리로 만든 갑인자를 본떠 만든 활자이며 『정조실록』에 임진자와 정유자의 주조 사실을 기록하면서 ‘鑄字成’이라고 표현하였고, 여타 임진자와 정유자의 주조 사실에 대한 기록에도 이런 문구가 있어 이 활자들을 구리로 주조했음을 알 수 있다.¹¹⁾

이들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로 찍은 책 가운데는 언해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활자의 주조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글 활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다. 관련된 유일한 기록은 『日省錄』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予曰, 綸音頒布, 以謄出之役, 每患遲滯, 故特以省弊之意, 使之印頒, 而又復遲滯, 果何故耶? 承旨沈有鎮曰, 鑄字中, 諺字多有新刻者, 而且白綿紙件則, 漬水印出, 故自爾遲滯矣. 予曰, 諺字亦依他活字樣, 多數鑄置無妨矣.¹²⁾

7)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 (서울: 탐구당, 1974), 302-305.

8) 인쇄한 책에 대해서는 천혜봉, 앞의 책 ; 김두중, 앞의 책 참조.

9) 김두중, 앞의 책, 305.

10) 『正祖實錄』 원년 8월 3일 丙辛.

11) 예를 들어 『英祖御製大學章句大全』 ‘鑄字事實’의 ‘國朝屢鑄銅字’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

『일성록』에는 정조가 출판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예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때도 정조는 『綸音』의 인쇄가 늦어지는 이유를 묻고 있다. 이 때 말하는 『윤음』은 1782년(정조 6)의 기근에 충청도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 이 해 11월 3일에 내려진 『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이 윤음을 베껴 쓸 경우 지체되는 폐단이 있어 인쇄하게 하였는데, 이 역시 지체되자 그 이유를 추궁하였다. 정조의 질문에 承旨 沈有鎭은 인쇄가 늦어지는 이유의 하나로 활자(鑄字) 중 언문자는 대부분 새로 새기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정조는 언문자 역시 다른 활자의 字樣에 따라 많이 주조하여 두어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조는 재위 기간에 여러 차례 『윤음』을 반포하였으며, 한자본과 언해본을 함께 간행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 한자본은 정유자를 사용하여 인쇄하였다. 그러나 언해본에 쓰인 한글은 목활자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8>의 1783년에 간행된 『諭中外大小臣庶綸音』의 언해본을 보면 글자의 모양이 균일하지 않아 대부분의 글자를 필요할 때 즉시 새겨서 쓴 것으로 보인다. 『유호서대소민인등윤음』의 인쇄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유진이 언문자는 대부분 새로 새긴 것이라고 보고한 것은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조는 다른 활자와 마찬가지로 언문자도 대량으로 주조해 두어도 무방할 것이라고 권하였는데, 이는 언문자를 나무로 필요할 때마다 새길 것이 아니라 금속으로 한꺼번에 많이 주조하라는 의미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후 언문자를 금속으로 주조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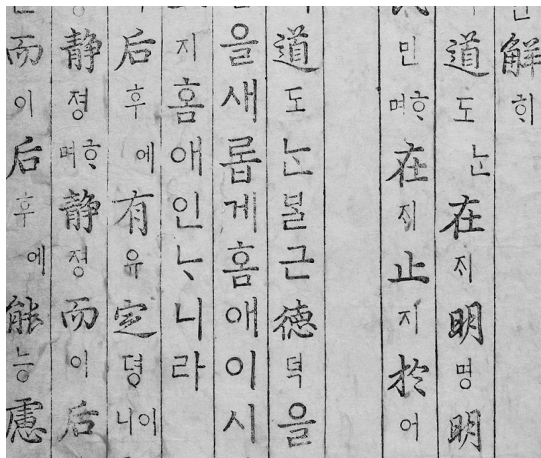
이처럼 한글 활자의 제작에 대한 기록이 없어, 실제 언해본을 통한 관찰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는 무신자와 임진자, 정유자로 찍은 언해본에 쓰인 한글 활자는 모두 목활자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로 찍은 언해본에 한글 금속활자가 쓰였으며, 현재 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는 한글 금속활자들이 바로 이 활자들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12) 『日省錄』 정조 6년 11월 9일.

앞서 인용한 정조 6년 11월 9일 『일성록』에서 무신자를 만들 때 한글 금속활자도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무신자 병용 한글 금속활자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을해자 등 한글과 함께 쓰인 다른 활자의 경우도 한글 활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다. 특히 무신자는 국가에서 직접 만들지 않았으므로 정조가 특별히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언문자를 금속으로 만든 예를 염두에 두고 정조가 막연히 금속으로 언문자를 주조하라 언급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 언해본에 쓰인 한글에 대해 보다 면밀히, 그리고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진 1>은 康熙 34년(1695년, 숙종 21)의 內賜記가 있는 『大學諺解』¹³⁾의 첫 번째 장을 확대해 본 것이다. 이를 면밀히 관찰해보면 한글 활자의 인쇄 상태와 금속활자인 무신자로 찍은 한자 활자의 인쇄 상태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글 활자가 금속활자인지 목활자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사진 1> 『大學諺解』의 일부

1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으로 청구기호는 일산 고 1238-1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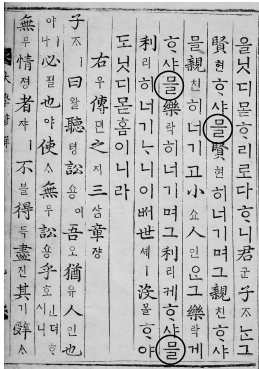
목활자로 인쇄한 것인지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인지는 보통 인쇄 상태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다음 <표 1>은 금속활자본과 목활자본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다.¹⁴⁾

<표 1> 금속활자본과 목활자본의 식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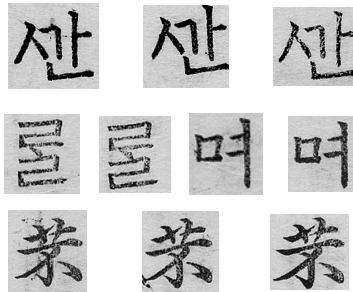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글자 모양	일정한 글자본에 의해 주형을 만들어 주조하였기 때문에 글자 모양이 같고 정연하다. 그러나 글자본이 다르거나 주조방법이 다른 초기 및 민간활자의 경우 동일한 글자라도 글자 모양이 다르므로 예외이다. 그리고 보주의 경우도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 또한 예외이다.	활자 하나하나가 글자본을 써서 뒤집어 붙이고 새겨 내기 때문에 동일한 글자라 하더라도 같은 글자 모양이 없고 조금씩 또는 각각 다르다. 민간활자의 글자 모양이 더욱 고르지 않고 조졸하다.
글자획	글자본에 의거 어미자를 정성껏 만들어 필요한 수만큼 찍어 부어내기 때문에 글자획의 굵기가 고르고 일정하다. 그러나 어미자에 의한 주조방법을 쓰지 않은 초기 및 민간 활자인 경우는 그다지 고르지 않다.	목활자는 글자본을 일일이 써서 뒤집어 붙이고 새기기 때문에 굵기와 가늘기의 차이가 심하며 고르지 않다.
마멸	금속활자는 오래 사용하면 글자획이 마멸되어 가늘어지고 일그러지지만 글자 획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	오래 사용하면 글자 획이 닳아서 부분적으로 결손되고 나뭇결이 생겨 인쇄가 조잡함.
칼자국	금속활자는 칼자국이 없다. 그러나 금속활자본에 섞인 나무 보자는 예외이다.	글자 후에 칼자국이 예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로획과 가로획이 겹치는 곳에 칼이 스쳐간 자국이 나타나기도 한다.
너털이	금속활자는 주조한 다음 줄로 손질하기 때문에 대체로 글자 끝이 둥글둥글하다. 그러나 민간활자는 손질이 잘 안된 경우 너털이 같은 흔적이 남아 거친 것도 있다.	쇠불이 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털이 같은 것이 없다.
먹색	금속활자본은 유연먹을 사용하여 먹색이 일반적으로 진하지 않다.	목활자본은 송연먹을 사용한 경우 먹색이 일반적으로 진하다.
반점 또는 번짐	금속활자본은 유연먹을 썼기 때문에 글자의 먹색을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면 반점이 나타나고 있다.	목활자본은 먹색이 진하면서도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면 먹물이 주위에 번져 있다.

14) 천혜봉, 앞의 책, 258.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글자 모양을 통해 무신자 언해본의 한글 활자가 목활자인지 금속활자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희 34년의 내사기가 있는 『大學諺解』의 한 면에 나와 있는 같은 글자와 1700년대 초에 인쇄한 것으로 보이는 『詩經諺解』¹⁵⁾의 한 면에 나와 있는 같은 글자들을 추출해 보았다(사진 2, 사진 3 참조).



<사진 2> 『大學諺解』의 한 면에 보이는 동일한 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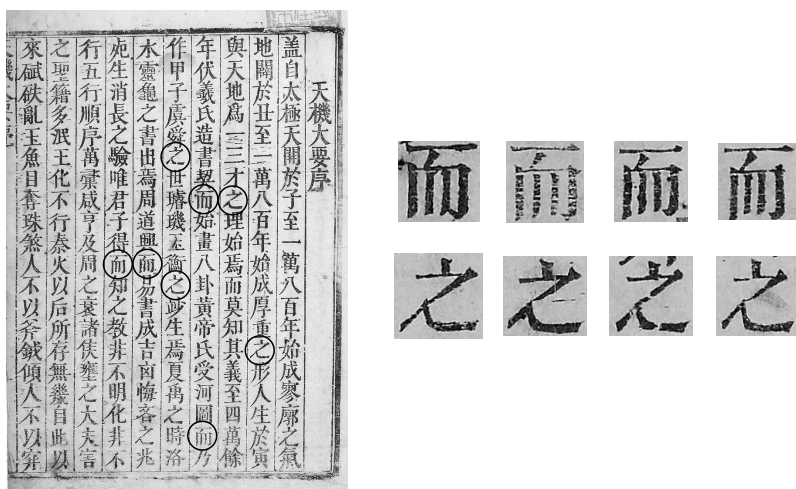


<사진 3> 『詩經諺解』의 한 면에 보이는 동일한 글자들

1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고조 4-1)으로 확인하였다.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2), 529에서 古山齋 소장본으로 숙종 30년(1704년) 내사 기록이 있는 무신자병용한글자로 찍은 『詩經諺解』를 소개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 소장본은 고산재 소장본과 같은 판본이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 면에 나와 있는 같은 글자의 모양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만일 이 활자들이 목활자라면 한 면에 인쇄된 글자가 이처럼 똑같은 모습일 수는 없다. 하지만 금속활자의 경우에는 같은 어미자를 사용한 경우라면 똑 같은 모양의 글자가 나올 수 있다.

반면 목활자로 인쇄한 경우는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8세기 경 觀象監에서 목활자로 인쇄한 『天機大要』¹⁶⁾의 첫 번째 면에서 같은 글자들을 추출하여 비교해 보았다(사진 4).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글자의 형태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글자는 칼자국이나 마멸된 흔적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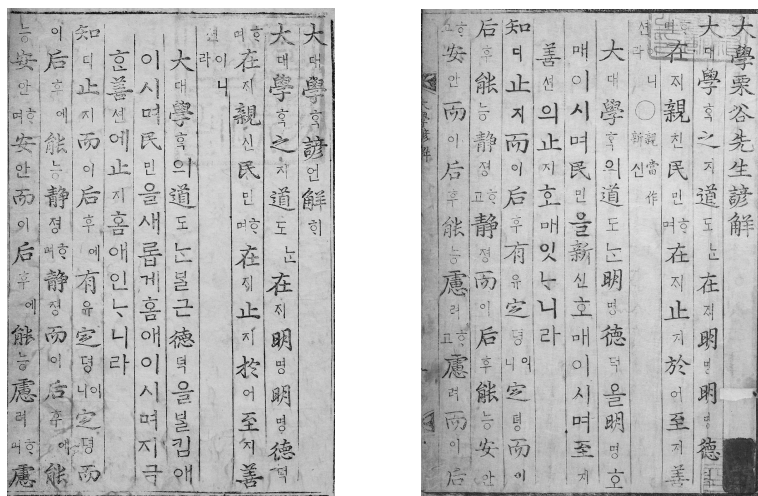
<사진 4> 『천기대요』의 한 면에 보이는 동일한 글자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무신자 초기의 언해본인 『대학언해』와 『시경언해』에 쓰인 한글 활자들이 금속활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금속활자를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 활자의 글자면이 닳아서 인쇄상태가 나빠지

1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게 된다. 무신자의 경우도 영조 말경까지 많은 책을 인쇄하였으므로 시일이 지남에 따라 활자의 형태가 고르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1684년(숙종 10) 이후에 인쇄한 책들은 그 글자체가 무신자 초기본과 많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글자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자획이 가늘어진 글자가 눈에 띈다. 이는 오래 사용하여 이지러지고 마모된 금속활자를 사용하고, 또 나무로 보주한 활자를 함께 사용하였기 때문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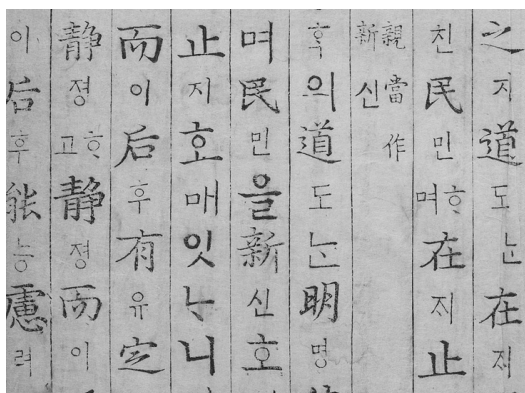
<사진 5> 『大學諺解』와 『大學栗谷先生諺解』의 인쇄 상태 비교

<사진 5>의 왼쪽 인쇄본은 1695년 이전에 인쇄한 『大學諺解』의 첫 번째 면이며 오른쪽 인쇄본은 1749년(영조 25)에 발간한 『大學栗谷先生諺解』¹⁸⁾의 첫 번째 면이다. 두 인쇄본을 비교해 보면 한 눈에 보기에 『大學諺解』는 한자 활자와 한글 활자 모두 글자획의 굵기가 고르고 일정하다. 반면 『大學栗谷先生諺解』의 경우에는 글자가 일정하지 않고 먹색도 일정하지 않아 보주한 글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7) 김두중, 앞의 책, 305쪽.

1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한국조 09가-6.

<사진 6>은 『大學栗谷先生諺解』 첫 번째 면의 일부를 확대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글자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글자 굵기도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활자는 획이 가늘어지고 일부 활자는 먹색이 짙거나 나뭇결이 보이는 것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사진 6> 『大學栗谷先生諺解』의 일부 확대

<표 2> 『大學諺解』와 『大學栗谷先生諺解』의 같은 글자 비교

大學諺解			大學栗谷先生諺解		
止	止	止	止	止	止
而	而	而	而	而	而
大	大	大	大	大	大

<표 2>는 『大學諺解』와 『大學栗谷先生諺解』의 첫 번째 면에서 같은 글자를 뽑아 예시한 것인데 『大學諺解』는 글자가 가지런하고 『大學栗谷先生諺解』는

글자가 일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大’자의 경우에는 두 책의 글자 모양이 같지만 『大學栗谷先生諺解』의 ‘大’자는 글자획이 가늘어져 많이 사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大學諺解』와 『大學栗谷先生諺解』의 같은 글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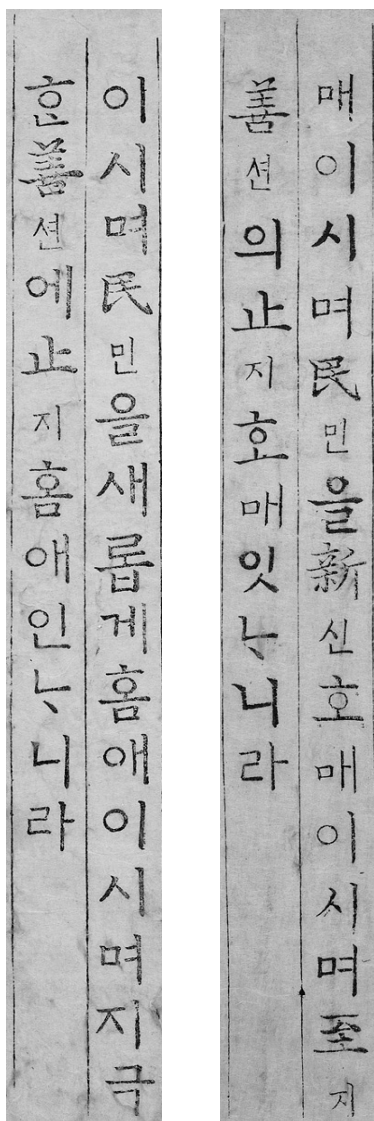
大學諺解	大學栗谷先生諺解
	

<표 3>은 두 책의 첫 번째 면에 있는 ‘有’자를 비교한 것인데, 『大學栗谷先生諺解』의 ‘有’자는 획이 일그러져 있어 많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글 활자의 경우는 어떤 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진 7>의 왼쪽의 『大學諺解』와 오른쪽의 『大學栗谷先生諺解』의 한글의 인쇄 상태를 비교해 보면, 왼쪽의 글자들은 크기가 비교적 일정하며 인쇄상태도 좋은 것에 반해, 오른쪽의 글자들은 글자의 굵기, 먹의 농도 등이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大學栗谷先生諺解』의 한글 활자에 나무로 보주된 활자와 오래 사용하여 닳은 활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4>의 ‘이’ ‘고’ ‘도’ ‘얀’은 『大學栗谷先生諺解』의 한 면에 보이는 같은 글자이다. 이 글자들은 글자 모양이 거의 일치하여 금속활자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흐’ ‘디’ ‘니’ ‘을’은 나무결의 흔적이 남아 목활자임을 보여준다.¹⁹⁾ 이로써 『大學栗谷先生諺解』의 한글 활자 역시 한자 활자와 마찬가지로 금속활자와 함께 나무로 보주한 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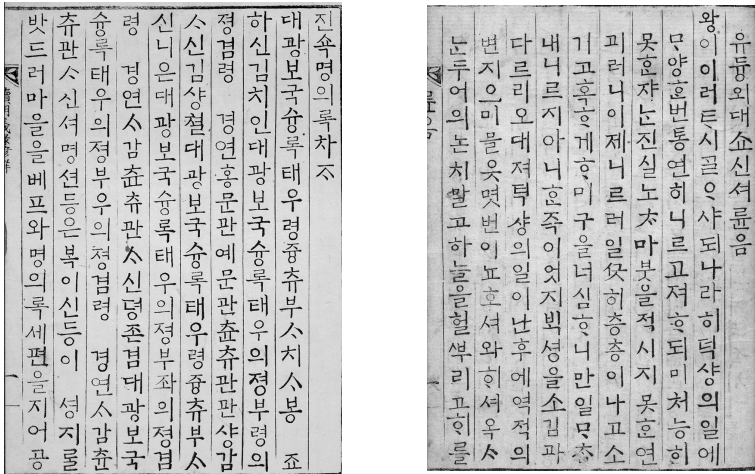
19) <표 4>에 보이는 숫자는 한 면에서 해당 글자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세 번째 줄의 네 번째 글자이면 4-3으로 표기하였다. 다른 표에서도 이처럼 표기하였다.



<사진 7> 『大學諺解』와 『大學栗谷先生諺解』의 한글 비교

<표 4> 『大學栗谷先生諺解』의 같은 글자 및 목활자로 찍은 글자

1우 6-2	1우 6-12
3우 9-16	3우 10-16
14좌 4-4	14좌 3-9
7우 3-13	7우 5-11
14좌 2-8	14좌 4-9
1우 7-10	1우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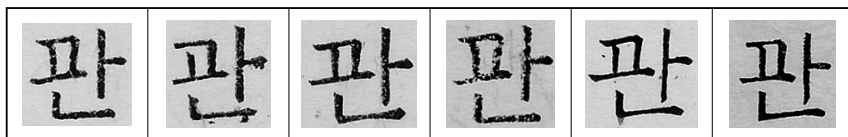
<사진 8> 『續明義錄諺解』와 『諭中外大小臣庶綸音』의 한글 인쇄 상태

정조 때 만든 임진자와 정유자로 찍은 언해본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사진 8>의 왼쪽은 1778년(정조 2)에 임진자로 간행한 『續明義錄』에 포함되어 있는 언해이다. 오른쪽은 1783년(정조 7)에 정유자로 간행한 『諭中外大小臣庶綸音』의 언해본이다.²⁰⁾ 이 책들의 글자 모양을 보면 획이 일정하지 않고 글자도 균일하지 않다. 또한 먹색이 짙고 나뭇결이 보이는 글자도 있다. 이는 임진자와 정유자 언해본에 서는 대부분 목활자를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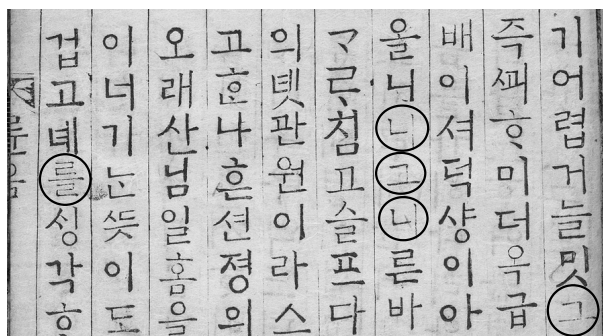
하지만 이 두 책에서도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찍은 글자가 보인다. 먼저 『續明義錄諺解』의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관’자를 맨 앞 글자부터 하나씩 6개를 확대해 보면 <표 5>와 같다. 6개의 ‘관’자 가운데 1과 4는 그 형태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들이 목활자로 찍은 것이라면 한 면에 나오는 글자가 이렇게까지 일치할 수는 없다. 한편 5와 6의 경우는 먹색이 짙고 글자가 정교하지 않아 목활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2와 3의 경우는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20) 『續明義錄諺解』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일산 고 2156-7. 『諭中外大小臣庶綸音』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일산 고 6022-30.

<표 5> 『續明義錄諺解』 한 면의 같은 글자 비교



또한 『續明義錄諺解』와 『諭中外大小臣庶綸音』에 인쇄된 한글 가운데는 글자 형태와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글자가 많으며, 이 가운데 특히 획이 아주 가는 글자들이 있다. 이는 대부분 여러 차례 사용해 심하게 마모된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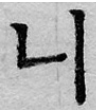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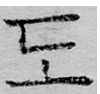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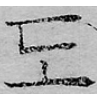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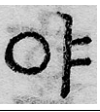


<사진 9> 『諭中外大小臣庶綸音』의 일부

<사진 9>는 『諭中外大小臣庶綸音』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1행의 ‘그’, 4행의 3~5번째 글자인 ‘니’ ‘그’ ‘니’와 10행의 ‘를’ 등은 특히 글자가 가늘며, 4행의 두 개의 ‘니’는 글자의 모양이 일치한다. 앞서 제시한 금속활자와 목활자를 구분하는 방법에서 보았듯이, 글자획이 마멸되어 가늘어지고 일그러지는 것은 금속활자의 특징이다. 이 글자들이 목활자로 인쇄한 것이라면, 이런 상태를 보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이런 활자들은 무신자 언해본 인쇄 때부터 여러 차례 사용한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 무신자본과 임진자본, 정유자본에 사용된 글자 가운데 글자 모양은 똑 같으나 마모되어 획이 가늘어지고 인쇄상태가 나빠진 예들을 볼 수 있다. <표 6>은 무신자본과 임진자본, 정유자본에서 같은 모양의 글자를 추출하여 예시한 것이다.²¹⁾ 무신자 인쇄본을 인쇄할 때 보주한 목활자를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예시한 글자들에서 목활자를 오래 사용했을 때 보이는 부분적인 획의 결손이나 나뭇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 금속활자를 계속 사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표 6>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의 같은 글자 비교

					
대 9우 6-7	시 권1, 11좌 2-5	시 권1, 11좌 8-12	윤 5우 4-3	윤 5우 4-5	
					
대 15우 6-11	시 권1, 24좌 1-15	울 14좌 4-4	명 차자, 3좌 8-12	명 차자, 5좌 7-5	윤 5우 6-12
					
시 권1, 2좌 7-16	윤 2우 1-4	시 권3, 24좌 8-6	명 권1, 5좌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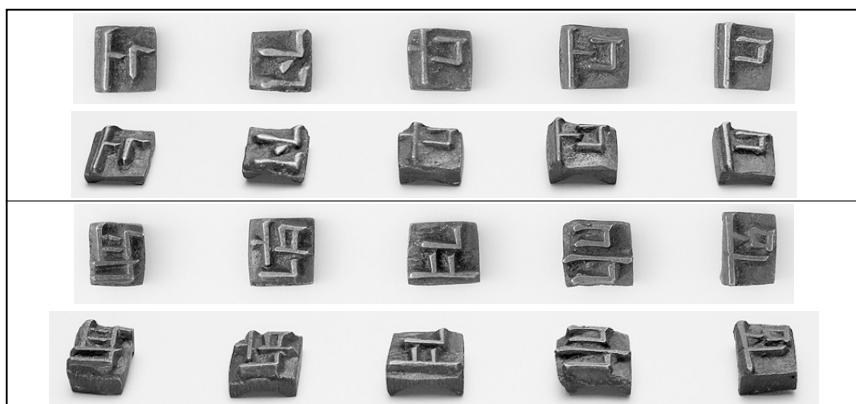
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무신자병용 한글 금속활자

필자는 앞서 발표한 논문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활자에 대한 조사와 고증을 통해 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를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30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활자는 무신자-정유자까지 인쇄본을 찍을 때

21) ‘대’는 『大學諺解』, ‘시’는 『詩經諺解』, ‘울’은 『大學栗谷先生諺解』, ‘명’은 『續明義錄諺解』, ‘윤’은 『諭中外大小臣庶綸音』이다. 이하에서도 같은 표기 방식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한글 활자들임을 밝혔다.

이 활자들은 대자 230여자와 소자 490여자 가량이 되는데, 일부 활자는 여러 차례 사용하여 마모되고 이지러진 모습으로 남아 있고 일부 활자는 많이 사용하지 않은 듯 각이 살아 있다. <사진 10>은 소장 활자 가운데 많이 사용하여 마모된 활자와 많이 사용하지 않은 활자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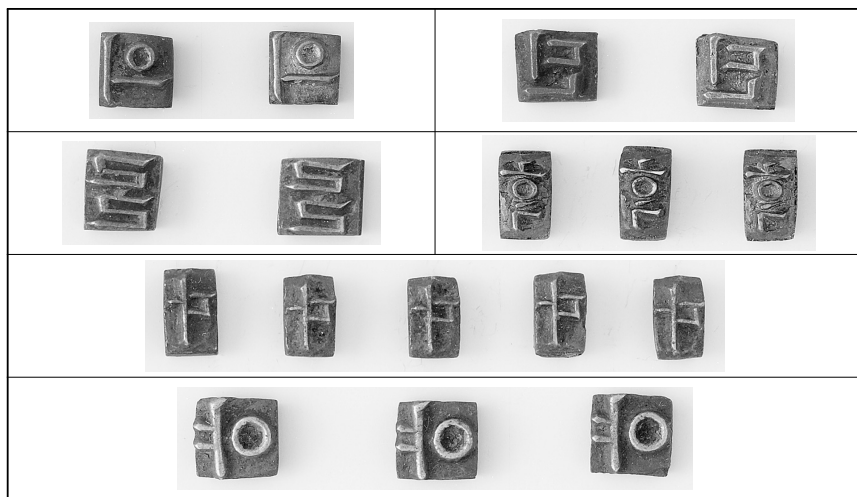


<사진 10> 많이 사용한 활자(상)와 많이 사용하지 않은 활자(하) 비교

마모된 활자와 마모되지 않은 활자가 섞여 있으므로 이 활자들이 모두 무신자 언해본을 찍을 때 주조되어 임진자, 정유자 언해본에 사용된 것인지, 임진자와 정유자로 언해본을 찍을 때 다시 만든 것인지를 판단하기란 어렵다. 앞서 인용한 『일성록』에서 정조가 언문자를 대량 주조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고, 이에 따라 이후 한글 금속활자를 주조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 활자들을 총칭하여 ‘무신자병용 한글 금속활자’로 칭하였다. 이는 무신자 언해본 초기본에서 금속활자가 사용되고 이후 목활자로 보주가 이루어지며 그 비중이 점점 높아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임진자와 정유자 언해본에서도 주로 목활자가 쓰였기 때문에 임진자와 정유자 단계에서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금속활자가 주류를 이루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더욱이 일부 활자의 경우는 글자 모양이 완전히 일치하여 같은 시기에 주조한 것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글자의 모양이 똑 같은 예를 몇 가지만 제시하면 <사진 11>과 같다.



<사진 11> 글자 모양이 동일한 활자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들이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 인쇄본의 정확히 어디에 사용된 활자인지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금속활자를 만들 때 같은 어미자를 사용할 경우 글자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활자와 인본에 남아 있는 글자의 모양이 똑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활자를 사용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인본에 남아 있는 글자의 인쇄상태가 현재 남아 있는 활자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글자의 모양이 같다면 해당 활자로 인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활자는 계속 사용하면 가늘어지고 일그러지기 때문에 초기 인쇄본과 현재 남아 있는 활자는 모양이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인쇄를 할 때 조판의 상황에 따라 획의 마무리 모양이라든지 끝처리 등에서는 약간의 출입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활자로 인쇄한 글자라도 세부적인 면,

즉 획의 끝부분 등에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몇 가지 활자의 경우 글자의 특성이 인본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런 자료들은 활자와 글자가 일치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같은 어미자를 사용하여 만든 활자로 확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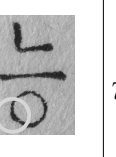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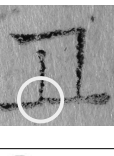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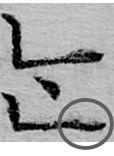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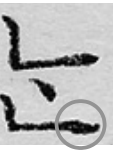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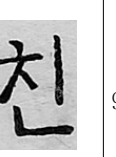
<표 7>의 몇 가지 고증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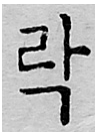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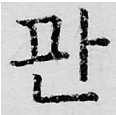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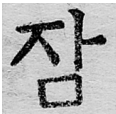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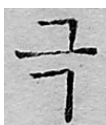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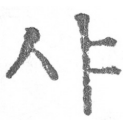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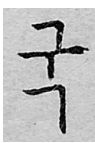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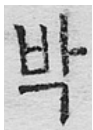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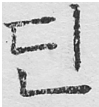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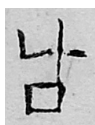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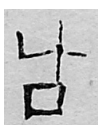
첫 번째 ‘능’자의 경우 받침 ‘ㅇ’의 오른쪽 상단에 돌기처럼 튀어나온 부분과 ‘ㄴ’의 가로획 끝부분이 미세하게 결실된 모양이 활자와 인본에서 일치를 보인다. 두 번째 ‘능’자의 받침 ‘ㅇ’은 왼쪽 아래쪽이 약간 굽은데, 인쇄본에서 그 특징이 드러난다. ‘어’자의 가로획의 톱니처럼 생긴 부분, ‘으’자의 ‘ㅇ’의 돌기, ‘요’자의 ‘ㅇ’의 왼쪽 부분에 보이는 홈이 인쇄된 글자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첫 번째 ‘고’의 경우에는 ‘ㄱ’의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는 부분에 작은 홈이 보이는데 『續明義錄諺解』의 ‘고’자에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두 번째 ‘고’자의 ‘ㄱ’의 가로획의 끝이 끊어진 듯 끝나는 형태는 『大學栗谷先生諺解』의 ‘고’자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이 활자의 정면은 ‘ㄱ’의 가로획의 처음 부분의 돌기 모양이 잘 보이지 않지만, 측면으로 찍은 모습에는 그 모습이 잘 보인다. ‘ㄴ’자의 받침 ‘ㄴ’의 가로획의 끝부분의 형태, ‘롬’자의 ‘ㄹ’ 오른쪽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는 부분의 형태 역시 인쇄된 글자와 일치한다.

이런 몇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표 7>에 제시한 다른 활자들도 인본과 비교해 보면 모양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활자들도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본 가운데서 똑같은 글자를 찾아볼 수 있어, 실제 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가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의 한글 언해본을 찍는데 사용되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22) 제시한 활자들은 비교의 편의를 위해 반전시킨 것이다. 사진상 활자와 인쇄된 글자가 일치하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진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물을 비교하면 일치한다. 활자 오른쪽의 글자들은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의 언해본에서 해당 활자와 일치하는 글자들을 제시한 것이다. 지면 관계상 해당 글자가 인쇄된 면의 좌우 표시, 해당 면에서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하였다.

<표 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의 사용례

		을 1우9-4			대 7우 2-4
		시 권1 1우 8-10			명 권1 5좌 9-4
		명 차자 5좌 7-2			명 차자 6우 4-13
					을 2좌 9-10
		을 2좌 3-4			명 차자 1좌 5-13
		대 9좌 7-14			시 권1 2좌 9-12
		대 23좌 5-12			대 9우2-14

		대 9우 3-15			을 7우 2-14
		대 15우 6-4			명 차자 1우 4-8
		대 4우 6-8			시 권1 9우 7-10
		대 23좌 10-17			대학 6우 10-3
		대 1-12			윤 1우 6-10
		대 9우 10-11			시 권1 9우 5-13
		대 11우 10-13			명 차자 6우 8-9
		대 23우 9-10			대 23좌 4-12

4. 맺음말

종래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로 인쇄한 언해본에 사용된 한글 활자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었으므로, 그 판본을 바탕으로 막연히 목활자로 생각해왔다. 본고에서는 무신자와 임진자, 정유자로 인쇄한 언해본들의 인쇄 상태, 글자 형태 등을 자세히 고찰하여, 무신자로 찍은 초기 언해본에서 금속활자인 무신자와 함께 한글 활자 역시 금속활자가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1668년 주조된 무신자는 영조 때까지 많은 책을 인쇄하는데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나무로 보주한 활자가 많아졌는데, 한글 활자 역시 나무로 보주한 활자가 많아졌음을 인본을 통해 밝혔다.

임진자와 정유자로 찍은 언해본의 한글 활자는 목활자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무신자 인쇄본에서부터 사용하던 금속활자도 목활자와 함께 사용되었다. 이는 인본들의 인쇄 상태와 한 면에 똑같은 글자가 등장하는 사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 가운데는 무신자에서 임진자, 정유자로 언해본을 인쇄할 때 사용한 한글 금속활자들이 남아 있다. 여기에 사용한 활자들을 통틀어서 ‘무신자병용 한글 금속활자’로 칭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활자들과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의 인본에 사용된 특징적인 글자들을 비교하여, 실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들이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 인쇄본을 찍을 때 사용한 활자들임을 밝혔다.

<참고문헌>

1. 자료

『朝鮮王朝實錄』.

『日省錄』.

『大學諺解』(국립중앙도서관 무신자본: 일산 고 1238-18).

『詩經諺解』(국립중앙도서관 무신자본: 한고조 4-1).

『大學栗谷先生諺解』(국립중앙도서관 무신자본: 한고조 09가-6).

『孟子栗谷先生諺解』(국립중앙도서관 무신자본: 239-123).

『續明義錄諺解』(국립중앙도서관 임진자본: 일산 고 2156-7).

『諭中外大小臣庶綸音』(국립중앙도서관 정유자본: 일산 고 6022-30).

2. 논저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2.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 서울: 탐구당, 1976.

국립중앙박물관. 『한글금속활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역사자료총서 IV』. 서울: 2006.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자에 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제29집(2004. 12). 311-343.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활자 연구.” 『서지학연구』 제31집(2005. 9). 89-120.

이재정 · 유혜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금속활자의 고증 및 성분분석.” 『서지학연구』 제37집(2007. 9). 123-164.